

민주 “전광훈 사태, 통합당 결자해지하라”

지도부 “소속 전·현직의원 다수 참여하고 발뺌...방역 협조”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절차...2차 재난지원금 지급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재확산과 관련, 8·15 광화문 집회와 미래통합당의 연관을 부각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방역을 흔드는 통합당의 정치공세는 매우 유감”이라며 “제1야당이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없이 비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역 현장은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방역의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

할 때에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는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의 진정성 있는 방역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민주당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8·15 광화문 집회에) 다수의 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 당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합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공당이면 공당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지적했다.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19 재

확산의 원인을 제고한 것으로 지탄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성명서를 내 “전광훈 목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 경고에도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해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감염 치료비, 접촉자 검사비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

은 당분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실명을 넣은 법안 발의로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런 법이 있었다면 지난해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는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원욱 금지법’을 거론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비판을 두고는 “갑연병과 재난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선별 지급” vs 김·박 “전국민”

민주 당권주자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재확산 방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도 “(광복절 집회가 열린)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잠복기 2주가 지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봐야 한다”며 “그 시점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재난지원금 규모나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원 대상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다면 이번

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서 “과거 복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선택적인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이 옳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서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본 이후에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갔느냐”라며 당장 급한 우선 지원 대상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바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 총리 “거리두기 2단계 사수 혼신”

“3단계, 경제 엄청난 피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지 않음도 사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운영진 의원의 질문에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0.1% 성장이나 마이너스나 재정 당국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를 범인이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일반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위험은 물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국 역학 조사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정 총리 “8·15 집회로 방역 무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 극우와 선 긋기

주호영 “우리와 달라”...하태경 “잘못된 과거 폐기해야”

미래통합당은 25일 코로나 19 재확산 야당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특히 잘못된 과거를 폐기하고 극우 세력과의 단절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위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여한 것도 아니고 열렬한 것도 아니다”라며 “사실 대단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3선의 하태경 의원도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강력하게 당 내부에서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얘기해야 한다”며 “우리 내부의 잘못된 과거는 다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전 대표, 홍문표 의원, 김

진태·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정경래 의원의 질문에 “아마 당무감사 때 같이 조사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코로나 19 재확산 위기를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치 8·15 집회가 모든 책임의 원인인 양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방역 성공을 기정사실로 했던 대통령이 조직적 방해, 가짜뉴스 유포하면서 방역 붕괴의 화살방아를 찾고 있다”며 “코로나 19 방역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 전대 대의원 온라인투표 시작

내일까지 이틀간...29일 본 행사 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의 당락을 좌우하게 도리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26일 시작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고 28일에는 전당대회 의장 선출 및 강령 개정, 29일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가 이어진다.

또 27일 MBC ‘100분 토론’이 가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각 후보들은 SNS 선거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권 경쟁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극적인 이변이 펼쳐질 것인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후보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바탕으로 대세론의 기반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후발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경쟁인 ‘영호남 대결’ 구도가 예상됐으나 이후 40대의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며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국대의원의 현장 투표(45%)와 권리당원 ARS 투표(40%), 국민(10%)·일반당원(5%)의 표를 합산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전국대의원은 1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적용 비율(45%)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국대의원의 한 표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수치상으로는만 전망했을 때 전국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70-80표의 힘을 발휘한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8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권리당원을 직접 만날 수 없고, 각 지역의 대의원대회도 축소되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전국대의원 확보가 당대표 선거의 당락을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